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8. 2. 11 ~ 2018. 3. 3 제177호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 주시리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지자체 중 최초

제정 앞장 선 안희정 충남지사 거부권 행사 예상

동성에 옹호를 조장해온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이 2일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펜앤드마이크가 같은 날 보도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 98개 지자체 가운데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제301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석 의원 37명 중 압도적 다수인 찬성 25명(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 2012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이른바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강제하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조례의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심각한 폐해가 부각되면서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전개 돼 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가 천안삼거리공원 광장에서 약 1만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 시국집회 및 기도회’를 개

최했다. 또한 이달 1일 충남 바른인권세우기 연합, 충남 바른 학부모 연대, 자유와 인권연구소,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25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충남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도지사는 인권조례 폐지 의결 사항은 이승만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GNPNEWS]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이사야 19:22)

기도 | 주님, 조국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침을 받아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 르완다 교회의 세례식

르완다의 한 교회에서 세례식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옛 생명이 대한 죽음을, 다시 나온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두고 있던 모든

것에서 죽는 것이다. 어쩌면 나만을 위한 공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나의 업적, 알뜰하게 저축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 그동안 공들여 온 나의 그 무엇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죽을 수 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택하겠는가? 그렇다면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이 되어

세상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곧 맛보게 될 것이다. [GNPNEWS]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라디아서 6:14)

다음 호는 3월 4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2)

“무엇 믿든 믿는 것은 좋아요” 정말 그럴까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저는 어느 종교이든 비난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봉사나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좀 더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무슨 상관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목적이려면 굳이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점

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평안과 위로, 가치 있는 삶, 풍요, 건강, 성공... 자기 개발을 위한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종교생활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나마 종교생활을 위한 삼아 살아왔는데 다 관두라니 당황스런 권고입니까? 결론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것을 지키고, 애써 자신이 가치를 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왕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당신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왕좌를 이양한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기적인 자기 추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오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릴 당신 죄의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십자가형으로



일러스트=김경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왕이며, 하나님 앞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당신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 뉴스 | 아메리카
美 아이오와주, '성경수업' 정규 교과과정 추진 2면
- 기획 | 초점
“오늘날 인권운동은 인권이라는 이름의 영적전쟁이다” 3면
- 인터뷰 | 도완 껍 쪽 장로
“100만 베트남 성도를 소망하며 전도하고 있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현실, 상황, 가능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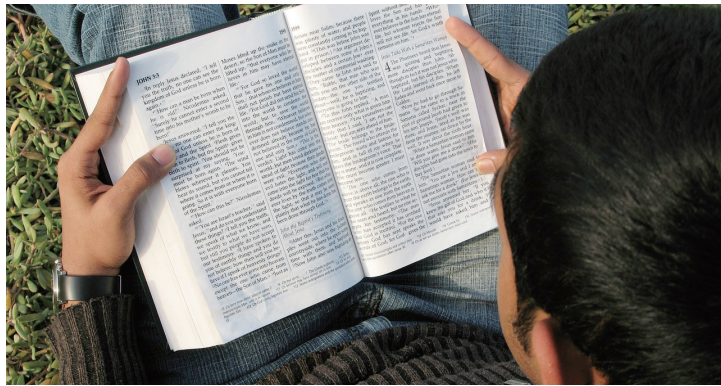
美 아이오와주, '성경수업' 정규 교과과정 추진

미국 아이오와주(州)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딘 피셔 의원은 11명의 하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추진했으며 법안이 확정되면, 미국에서 7번째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된다. 지금까지 텍사스와 테네시,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오클라호마가 성경을 선택 수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아이오와주 교육부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과 신약성서를 바탕으로 특별교재 제작과 교사 교육을 계획 중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성경이 미국에 끼친 영향력을 강조하며 서구문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더래피즈시(市)에서 사역하는 데이브 도일 목사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성경에 담긴 모든 내용을 학습할 것"이라며 "미국의 탄생은 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



작됐다.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반대자들은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성경수업은 종교의 자유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입법부는 "법안은 성경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있다."며 "수업에서 신앙생활을 강조하거나 비종교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에서 찬반으로 성경 과목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수업에 필요한 교재 비치와 교사교육과정 이수 는 필수사항이다.

아이오와주 지역언론사인 '디모인스 레지스터'에 따르면 현재 아이오와주는 종교 관련한 교재 사용을 모든 공립학교에 허용하고 있다. 단, 부모가 읽을 수 없도록 한 종교 관련 서적에 대해서는 주 정부도 해당서적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강요할 수 없다. [GNPNEWS]

아메리카

동성애·낙태 반대 美기독교인, 살해 협박 시달려



▶ 에밀리 토메즈 (출처: anchorednorth.org 영상 캡처)

최근 탈동성애 사실을 밝히거나 낙태를 반대하는 등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삶을 선언하거나 공표한 기독교인들이 인터넷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2017년 자신의 탈동성애 과정을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공개한 에밀리 토메즈라는 여성 기독교인은 "언론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밝혔다.

또 영상을 공개한 미디어 사역단체 '앵커드 노스(Anchored North)'는 한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가서 당신들을 한 명씩 죽이고 싶다. 또 당신들 가족들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다."는 협박 메일을 받기도 했다. 에밀리 토메즈의 영상은 지난 12월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210만 번 조회됐다.

앵커드 노스의 그레그 수커트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를 통한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살해 협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포스트지는 또 기독교인 블로거이자 홈스쿨링 교사인 엘리자베스 존스턴도 페이스북 상에서 한 단체로부터 '산 채로 불태우겠다'

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고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존스턴은 이같은 사실을 페이스북 측에 신고했으나 페이스북 측은 "문제의 단체는 풍자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페이스북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해왔으며 "자신은 페이스북의 이같은 반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성애나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노골적인 폭언과 협박 등 차별적 언행과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GNPNEWS]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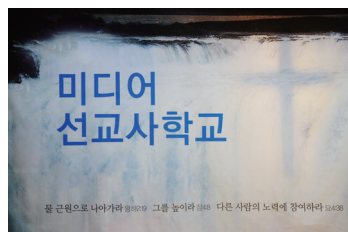
미디어선교사학교 제4기 훈련생 모집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들을 양성하는 미디어선교사학교 제4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부터 1년간 합숙으로 진행 될 이번 학교는 미디어 영역의 전반적 이해와 실습, 마지막 시대에 소

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로 미디어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24일까지. 문의 ☎ 070-7417-0408~10,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1~2.3)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남아공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50ℓ로 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 가뭄으로 인해 수도 공급 중단을 의미하는 '데이 제로(Day Zero)'를 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급수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주님. 극심한 가뭄으로 케이프타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완전하고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유일한 대담임을 믿으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케이프타운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강청합니다.

日서 '임신부 혈액으로 친부맞나 확인' 서비스... '낙태조장' 논란

일본에서 임신부의 혈액으로 태아와 아버지(혹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큰 남성) 사이 친자 여부를 감정하는 서비스가 퍼져 낙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일본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세워주시고 증인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가치로 이 땅을 개혁시킬 주님만 기대합니다.

가톨릭 아일랜드, 동성혼 이어 낙태도 국민 투표

가톨릭 인구가 80% 이상인 아일랜드 정부가 오는 5월 말 낙태와 관련한 법 개정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BBC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치명적인 기형이 있을 경우 임신 12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님. 진리를 타협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일랜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시오. 복음을 들려주셔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아일랜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소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2월 12일 ~ 2018년 3월 3일

2월 12일~17일

- 2.12~17(매일0시~24시)
 - ▶네팔 포카라 / 네팔가족동체 (김**)010-4743-9397
 - 2.12~16(매일14-24시)
 -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 2.12~14(매일0시~24시)
 - ▶경기 부천 / 새마음복음교회 (최**)010-4751-0802
 - 2.12~13, 15~16(매일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2.13~16(매일15시~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2.15(08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2.16(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2.16(15시)~17(03시)
 - ▶서울 강서 / 어울림교회 (박**)010-2664-6936

2.22(08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2.23(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2.23(10시)~24(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2.23(15시)~24(03시)
 - ▶서울 강서 / 어울림교회 (박**)010-2664-6936
 - 2.25(14시)~26(02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임**)010-2276-8221

2월 26일~3월 3일

- 2.26~3.3(매일0시~24시)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010-5057-2149
 - 2.26~28(매일0시~24시)
 - ▶경남 김해 / 진영대성교회 (박**)010-3930-6296
 - 2.26~27, 3.1~2(매일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2.27~3.3(매일15시~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3.1(08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3.2(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3.3(06~12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초점 | 복음과 학생인권

“오늘날 인권운동은 인권이라는 이름의 영적전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학생인권에 대해 당사자인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한 기독교에서 ‘복음과 삶’이란 시간에 ‘복음과 학생인권’이란 주제로 발표된 학생의 한 학기 연구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이 강조되는 때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1만4000여 개의 비영리단체 중 반 이상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단체들인 것을 보면 그 현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문 채택으로 지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힘주어 인권을 외치는 지금, 인간다운 삶을 더 누리게 되었을까? 실상은 인권을 외칠수록 동성애 등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회와 복음은 가로막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닌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전쟁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인권

인권이란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권리다. 따라서 인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인권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은 채 인간 자체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외치고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마땅히 누리야 할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과 귀족 중심의 봉건사회를 거부하고 부르주아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억압받던 시민계급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인권보장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 인권보장은 프랑스 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은 겉보기엔 농민들과 평범한 시민들의 봉기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있다. 당시 전 유럽을 휩쓴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 개혁을

요구했다. 그들은 사회계약설과 인민주권론을 주장했다. 그들은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주장보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했다. 프랑스 혁명을 기초로 한 인권의 역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관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외치고 있는 인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성경의 진리와 반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 대전으로 사회주의 부상

프랑스 혁명 이후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주장은 유럽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됐다. 19세기 산업화의 등장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화두에 오른다. 자본주의의 본격화로 노동자 계급이 증가하면서 그들과 함께 억압받던 여성의 인권 또한 대두된다. 이 무렵 사회주의 사상이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상으로 이후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으로 이어졌다. 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좌파’라고 불렸다.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공회에서 진보적이고 기존 체제에 대해 반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유래됐다. 이 사상들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 내의 평등, 또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힘을 얻게 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전쟁 이전에는 내정간섭, 주권침해로 여겨져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관여할 수 없었던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본주의와 기독교 전통적 가치 체계를 옹호하는 권위적이던 기존의 정치 체제는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밀려난다. 개인적인 인권을 주장하고 평화를 외치는 진보주의적 주장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개인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1960년대부터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정의와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일어난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 또는 5월 혁명이다. 프랑스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자 가장 진보주의적 성향을 띤 대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일으키고, 1000만 노동자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진다.

‘금지함을 금지하라(Il est interdit d'interdire), 구속(제한)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와 같이 그 당시 유명했던 혁명 슬로건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 종교적 삶, 경건에 대해 중요성을 표출해냈다. 그들은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같은 보수적인 가치들을 평등, 성 해방, 인권, 공동체주의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물들은 지금 우리 눈 앞에 나타나 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기존 가치 체계와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인권운동들,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인권침해라는 인식들이 가득한 다음세대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물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신봉자들은 ‘좌파’적 성향을 띤다. 그들은 현재 정체성 정치라는 전략을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세속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주입하고 있다. 정체성 정치는 사회정의를 수행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며 이들이 말하는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장 억압받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시즘(Marxism) 같은 사상은 좌파의 진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매주 중시한다.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던 그 이론이 이제 학생, 여자, 유색인종, 성소수자, 비주류 종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 가치 체계의 결함 때문이며 이에 대해 반발하고 대항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여긴

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기존의 보수주의적인 가치들과 기독교적 가치들을 역 차별하는 인권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영향 받은 학생인권운동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도 포스트 모더니즘과 좌파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상들은 1960년대 한국에서도 사회 각계에 영향을 주었다. 많은 교사들은 교원노조 운동을 시작해 1980년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은 본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들이 스스로 국가에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인식을 한다. 전교조는 진보적 교육을 주장하고 체벌 반대, 야간자율학습 반대, 학교 내 차별 금지, 평등, 자유 등을 주장하며 그 누구보다 학생인권운동에 앞장선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체계의 결함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2000년도 초반, 학생 인권운동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교내에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다가 2004년에는 청소년인권단체가 등장했다. 그들은 야간자율학습, 체벌, 연애 탄압 등을 반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에 제정, 발의됐고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통과됐다. 현재 다음세대의 세계관 속에 인권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은 세속적 세계관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공격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제거나 제한은 무조건 침해로 여기고 있다. 또 그로 인해 끊임없는 기성세대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반발, 불만들이 교육,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다음세대에게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세계관으로 형성되고 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은 사회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렸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부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에 타협하면서 기독교적 윤리, 도덕 가치 체계만 남았다.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희미하게 남은 사회가 되어버렸다. 교회는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증인이 되지 못했다. 복음을 맡은 교회의 타협으로 세상은 사회주의, 마시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뒤덮였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도덕

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타락한 사회로 병들어 갔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회가 되었고 다음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세대 안에 복음에 대한 열망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 같은 성경의 진리를 증오한다. 진리와 관련된 기존의 규범들에 반발심을 느낀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 있는 우리와 다음세대에게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다(딤후 3:15~17).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다. 권리에 의무가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 첫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죄가 우리 생명을 들어옴으로 우리 그 인권의 본질,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인간 사회 전체가 끝이 없는 부자연스러움의 길로 들어섰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죄인 중에 죄인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자들을 돌아보시고 다가가셔서, 사랑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형의 삶이 권리포기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는 신권을 가진 분이셨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동참해 그 생명을 받았음을 믿기만 하면 그 원형의 삶을, 정말 창조하신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택할 길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의 인권을 위해 나의 인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전도와 나의 권리포기는 가장 위대한 인권운동이며 지체를 걸려넘어지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인권침해이다. [GNPNEWS] 박은준 형제(헤브론원형학교 11학년)



▶ ‘복음과 삶’ 시간에 ‘복음과 학생인권’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기획 | 조선선교열전 (15) - 전라남도 편

순천 선교부 거리와 인재 길러낸 매산학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전라남도는 교회, 학교, 병원, 선교사 가족 등 기독교 선교유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 중에서 순천은 미국 장로교의 한국 남부지역 선교활동의 거점이었다. 순천 매곡동 일대에 선교사촌이 형성되었고 여러 채의 미국 가족들이 들어섰다. 지금도 매산중학교의 매산관을 비롯한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묘지, 교회 등 10여개의 기독교 유적과 7개의 기독교 터가 순천의 선교부 거리로 보존되어 있다. 이 선교부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자녀들까지 몇 대를 이어 한국선교에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전남에서 활동한 코잇 선교사

코잇(고라복) 선교사는 1907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내한, 1908년 9월 세실리에 선교사와 결혼했다. 그는 1909년 3월 광주선교부에 부임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1909년 9월 큰 아들 우드와 1911년 9월 딸 로베르타를 낳았다(후에 순천으로 옮겨

온 지 일주일도 되기 전 이질로 두 아이를 잃는다). 전남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설립한 그는 1913년 프레스톤(변요한) 선교사와 순천선교부 창설자로 활동했다. 또한 순천의 평촌교회에서 오웬(오기원) 선교사의 후임으로 시무한 것을 비롯, 화순 대포 교회, 보성 윤립교회를 부흥시켰다. 순천 용당 교회와 구례읍 교회 설립에도 협력했다. 1920년 들어 그는 윌슨, 녹스, 윈 선교사 등과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 고원지대를 선교사 수양부지로 택하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더위와 질병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교정책 결정과 선교활동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프레스톤과 코잇 선교사는 순천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기관을 함께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지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매산학교이다. 처음에는 은성학

교로 불렸던 이 학교는 현재 매산중과 매산여고, 매산고 세 학교로 나누어졌다.

세 번 개교한 매산학교

순천시 북쪽에 위치한 난봉산 줄기에 있는 매산중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교실 창문 아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말씀이 보인다. 정원에 있는 돌에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새겨져 있다. 설립자 변요한(프레스톤), 1대 교장 고라복(코잇) 선교사를 비롯, 2대 구레인(크레인), 3대 이보린(레이놀즈, 이눌서 선교사의 아들), 4대 원가리(언거) 박사 등이 교장을 역임했다.

매산학교는 1916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성경교과 교육 문제로 탄압을 받았다. 학교는 자진 폐교했다. 그 후 1921년 일제가 문화정치를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면서 매산



▶ 매산중학교의 매산관 (출처: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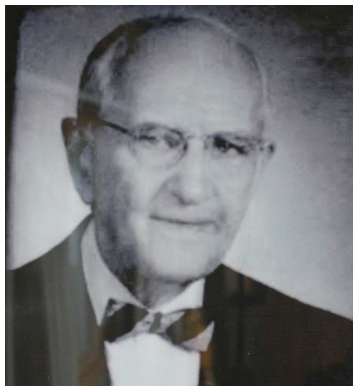
학교와 매산여학교로 재개교하게 된다. 남학생들에게는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여학교는 단주공장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과 학비를 함께 벌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다시 문을 연 매산학교는 학생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순천지역의 대표적 사립학교로 발전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유관순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광주에서 한 팔을 잘린 윤형숙 전도사가 이 학교 출신이다. 1937년 9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하고 두 번째로 자진 폐교했다. 매산학교는 해방 후인 1946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명의로 남녀공학인 순천매산중학교로 세 번째 개교를 할 수 있었다.

이 학교의 매산관은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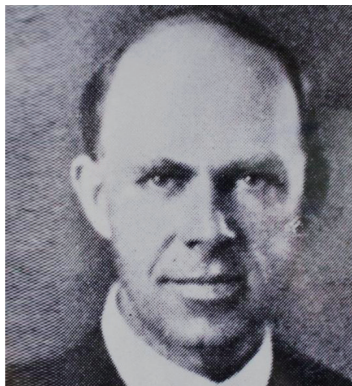
로, 순천의 대표적 서양 근대 건축물이자 한국 초기 교회의 선교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건축물이다. 매산관은 1913년 착공하여 1916년에 준공되었는데, 처음 이름은 순천선교부 전체를 후원했던 조지와츠를 기념하여 '와츠 기념 남학교'로 불렸다. 당초 벽돌 건물이었으나 1930년에 석조로 된 현재의 건축물이 신축됐다. 외벽은 순천과 옥천 지역 일대에서 생산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고, 내부 장식 재료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교사로 사용될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 문화재청 홈페이지



▶ 초대설립자 변요한(프레스톤) 선교사(좌)와 1대 교장 고라복(코잇) 선교사 (출처: 순천매산고등학교)



선교 통신

신앙을 공개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개종이 친족과 공동체에 수치를 입히는 배교 행위라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개종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아프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치하에 있다. 또 권력 쟁탈을 위한 습격과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다. 최근에도 수도 카불에서는 호텔 총격 테러, 구급차 자살폭탄 테러, 군사 교육시설을 겨냥한 자폭 공격 등으로 3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국 BBC는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 영토의 70%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간의 사상자와 난민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기독교인

들은 모두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이다. 개종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들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현지 사회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살해될 수도 있다. 세계기도정보에 따르면, 아프간의 기독교인은 1만5000여 명으로 전 인구의 0.0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독교인, 전 인구의 0.05%

이 나라의 사고 방식에서는 국가 자체가 외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시되고 그 다음은 친족, 부족 순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국가 중요성을 훨씬 능가한다. 아프간인들은 가족과 마을 그리고 부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투철하다. 그래서 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히 외래의 문물을 수용하는 사람은 전 통으로 회귀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 출처: opendoorsusa.org 캡처

받게 된다.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가는 소속된 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추방당하게 된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는 탄압의 정도가 달라진다. 기독교는 아직까지 아프간 문화와 사회 그리고 이슬람교에 적대적인 서구 문명으로 간주되며,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은 모두 반역죄로 여겨진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공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도에 따르면 사장이 기독교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인해 상점과 사업장이 파괴된 경우 마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숨기기도 하는데, 가족들 중 어느 누가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아프간의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종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생각할 수조차 없다. 기독교식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개종 사실을 숨긴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예법에 따라 매장된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녀들을 억지로 떼어내 다른 무슬림 가정으로 입양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기독교인들의 구금이 일어나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100만 베트남 성도를 소망하며 전도하고 있어요”

불같은 연단은 불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80년대 보트피플로 생사를 건 항해 끝에 홍콩난민수용소의 삶 등 산전수전을 거친 도완 픽 쯡(40) 장로. 주님의 은혜로 절망의 끝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 이제는 고국 베트남에 돌아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만났다. <편집자>

-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나요?

“저는 12살 무렵부터 홀로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보냈기 때문이죠. 그렇게 1989년에 보트피플로 가게 된 곳이 홍콩이었습니다. 도착한 이후, 난민수용소에서 살았어요. 홀로 살면서 나쁜 사람들처럼 막 살았어요. 그곳에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주 2회 수용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수용소

숨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 당시 상황이 기억나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시작할 때 30분 정도는 반드시 성경을 읽었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성경읽기에 내 삶을 드렸죠.”

- 놀라운 일이네요.

“그때 수용소 안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제

베트남 보트피플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시점이다.

-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고국에 돌아온 셈이네요.

“그렇죠. 1996년에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며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
고국에 돌아와서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를 찾던 중
주님이 한 가정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

예배할 교회를 찾았어요. 아쉽게도 교회를 찾기 어려웠어요. 당시는 베트남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한 시기였기에 공개적으로 교회간판을 걸 수 없었죠. 그러다 주님이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정교회를 이끄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소속된 주원자오 교회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 주님이 교회로 인도해주셨군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는 하노이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다니며 청년들을 신앙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2003년 무렵, 교단에서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개척사역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제가 선뜻 응했어요. 국제관계의 일을 하고 싶던 저에게 적합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으로 갈 수는 없더군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했죠. 기도했어요. 어떤 길이 주님의 부르심인지 알고 싶었어요.”

교회 개척에 참여하다

-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갑자기 제 삶 앞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펼쳐졌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힌 도완 픽 쯡 장로

어요. 한 가지는 캐나다에 계시던 어머니의 그곳으로 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두 번째 선택지인 말레이시아행을 주님 뜻으로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행을 포기했어요. 이 말은 학업도 내려놓는다는 의미였어요. 한 학기만 마치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주님 뜻이라고 은혜히 결정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한 셈인데, 주님 생각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죠. 어느 날 갑자기 말레이시아 사역 자체가 취소됐어요. 저는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학업을 멈추고 가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못하고, 학교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 조금 당혹스런 결론이네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진행됐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 눈 앞에 나타난 사역은 교회 개척이었어요. 그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나서 얼마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교회 전도자로 섬겨야

했어요. 당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 집에 25~30명 정도가 살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알콜 중독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중 한 명은 지금 목자가 되어서 교회 책임자로 섬기고 있어요.”

-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재정도 적지 않게 들었을텐데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을 위한 재정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나 심방을 위한 재정은 필요한 만큼 채워졌어요. 하지만 주일날 활동하기 위해 차비를 모아야 했어요. 그러면 매끼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어요. 물론 아내가 좀 힘들었죠. 그 많은 식구들 식사문제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은혜로 잘 지나왔어요.(웃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돼야합니다”

- 지금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됐나요?

“2004년에 하노이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했어요. 초기 성도들은 대부분 하노이에서 30km 떨어진 화락이란 곳에서 왔어요.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매주 하노이까지 왔어요.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구입해 그 차에 5명이 타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6면에 계속)



▶ 하노이의 길거리 풍경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가 15살이었어요.”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자유를 소망하던 베트남 국민들의 고난은 시작됐다. 1995년까지 20여 년간 80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산화 된 베트남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행렬에 가담했다. 조그만 보트나 선박을 탄 탈출행렬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많았다. 해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정원초과와 폭풍우로 배가 침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도 많았다. 이들의 걸음은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이어졌다.

난민수용소에서 예수님 영접

- 수용소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당시 난민수용소에는 2000명 정도가 살았어요. 한 방에 150~200명 정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침대 하나를 함께 사용했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로 생활을 했는데 저는 부모 없이 혼자 살았어요. 별로 할 일도 없던 터라, 하나님에 대해 말

삶의 군주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성경읽기에 온 삶을 바치다

- 그런 마음으로 실천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 한 사람에게 제가 정리한 10가지의 내용을 적어주었어요.”

- 난민수용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홍콩에 머문지 7년 만에 다시 베트남에 돌아오게 됐어요. 1996년에 수용소가 없어진다고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그때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1996년은 아편전쟁 당시 영국으로 조차(租借)된 홍콩이 150년 만에 중국에 반환되던 해다. 홍콩의 중국반환은 19세기의 역사가 마침내 종결되는 사건이었지만, 이처럼



▶ 교회 2층에 있는 천막으로 지어진 주거공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갱신 (2)

현실, 상황, 가능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병든 자아의 왕국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그 일이 베들레헴 소년 다윗에게 있어났다. 그에겐 가능성이나 준비된 그 무엇도 없었다. 주님의 통로라고 하기에는 겨자씨처럼 미약했다. 그에 비해 사울의 왕국은 굳건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켰다지만 여전히 사울의 압도적인 권세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 언약을 누가 믿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더욱 비참해졌다. 다윗은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주체를 주목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확률, 내 경험, 내 가능



일러스트= 임아람

성에 빠져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오직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전능하다.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기 전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 믿는 믿음,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또한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불가능해 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여지가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자신도 타인도 모두가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을 주셨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롬 4장)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가능성을 찾지 않고 언약하신 하나님만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주님은 '나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라는 절대 믿음만을 요구하신다.

이 믿음은 2000년 후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서도 발견된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말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게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피조물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나?'고 물었을 때 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나의 확률이 0%인 상황 앞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의 끝은 항

상 나의 가능성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현실과 상황을 따지고 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믿을 없었던 다윗을 통해 왕국 한복판에서 일으키는 주님의 승리를 보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 그리고 '우리세대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2016년 8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오직 믿음” 시리즈

2017순회복음집회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과기도메시지 시리즈
Sola Fide 오직 믿음
로마서 1:16-17
오디오CD - A/B
Track1 (00:00-22:56)
Track2 (22:56-43:34)
특별을 인쇄하면 배양 지점부터 유통할 수 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
GNM-032CA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고이자
눈물겨운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강의 수록 USB 발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RETURN to the '오직 믿음으로' GOSPEL

강의 수록 USB(1개) 25,000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5대 강령 중 “오직 믿음” 주제로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집회 강의영상과
헤브론원형학교의
성경입체낭송 “로마에 온 편지”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삶이 바뀌길...”

덕분에 성도들의 관계가 가족 같이 친밀했어요. 그러다가 화락지역에 거주하는 한 성도님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처소를 제공했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화락지역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 뒤로 성도들 수가 늘어나 여러 번 예배 처소를 옮기다가 2016년에 화락지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도님이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헌물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1년 동안 직접 건물을 지었어요. 2016년 성탄예배때 첫 예배를 현재 교회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린이 예배실 등 필요한 곳을 계속 짓고 있고 교회 앞 마당을 넓혀가고 있어요.”

-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평일에는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현재 출석교

인은 165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 삶이 바뀌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 기도제목을 나눠주시겠어요?

“현재 교회가 있는 지역 근처로 공장도 들어오고, 대학교도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이 다음세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앞으로 베트남에 100만 성도가 세워질 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GNPNEWS]

하노이(베트남)=본지특파원

▶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첫 날만 참석하기로 했던 훈련이 아웃리치까지 이어지다”

처음 기도훈련학교에 참석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삶의 의욕도 없고 매사에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첫날 훈련학교 면접을 볼 때 나는 선교사님에게 어쩔 수 없이 오늘만 참석하기로 했을 뿐, 이 학교를 다닐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일단 오늘 하루만 참석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내 계획대로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사실 나처럼 믿음 없는 놈에게 기도훈련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분들과 차원도 다르고 민폐만 끼칠 게 뻔했습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강의는 지루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쉬는 시간까지 못 기다리고 주머니 속 자동차 키를 만지며 적절한 타이밍을 찾던 순간, 감사님의 한 마디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내 몸 속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지만 눈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다 하고나니,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자 그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다고... 이정도로도 잘 한 거라 생각하며 학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훈련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강의로 또 제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계속 이끌려갔습니다.

한 주 한 주 감동에 이끌려

주님은 요리조리 빠질 궁리를 하며 뻘뻘거리는 저를 한 집회장소의 엘리베이터 섬김이를 시키시면서 마음의 무장해제를 시켜주셨습니다. 인과 속에서 헤매던 할머니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웃으시며 따라오시던 할머니가 제 뒤에서 손을 꼬옥 잡으셨습니다. 순간 훈련 첫 날 저를 울게 만들었던 그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대회를 마치고 나니 이번엔 복음훈련과 아웃리치



일러스트=박남희

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훈련은 가기 싫어서 신청서만 작성하고 전화면접을 망치기로 계획했습니다. 면접관에게 전화가 오자 동문서답을 하려는데, 마침 신청서 작성을 도와줬던 아내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바람에 성심성의껏 면접에 응한 저는 결국 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훈련에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왜 기쁨이 없었는지, 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절대 안 가려고 했던 아웃리치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섬세한 것까지 알고 계셨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웃리치 재정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현금해 주신

돈에서 7만원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어차피 나 쓰라고 준 돈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없었고, 주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까지 팀 전체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남은 재정을 물어보았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7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채워주셨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팀원들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중보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GNPNEWS] 박경구 집사(갈보리교회)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제가 스물다섯 살이 되던 무렵, 중국에 잠시 나가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숙소 옆에 살던 중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연변의 사투리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북한 돌아가서 꼭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산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사상교육에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썩 와닿지 않았고 이상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북한에 돌아가면 꼭 믿으라.”고 하시는데,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 와닿아서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당시 큰 돈이었던 중국 돈 100원을 저에게 주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베닐에 넣고는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도착한 후에는 자신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그것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그 아줌마 생각이 나서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닫고, 불을 끄고서는 담요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손에 쪽지를 쥐고 혼자서 중얼중얼 계속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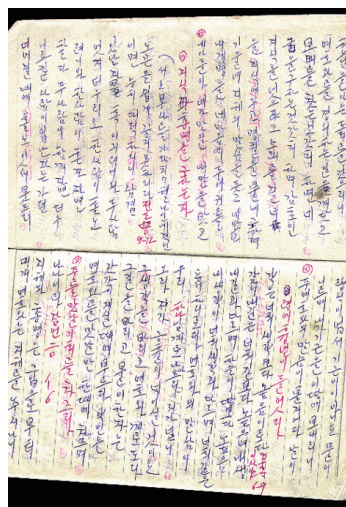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쪽지를 보고 왜 이상한 글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쪽지를 서둘러 숨겼고, 친구가 돌아가고 난 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종이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이전에는 가끔씩 생각이 나면 읽던 것을 불 끄고 누워서 자면서도, 변소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직장에서 조회를 할 때도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 산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울 때면 마음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산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복권 2등에 당첨되어 녹음기를 받기도 하고, 배고플 때는 때에 따라 음식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녹음기에 당첨되었을 때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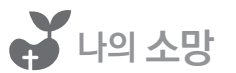
그리고 그러한 일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녹음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녹음기



▶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성경 필사본 (출처: morningsunday.com)

에 당첨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GNPNEWS]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복음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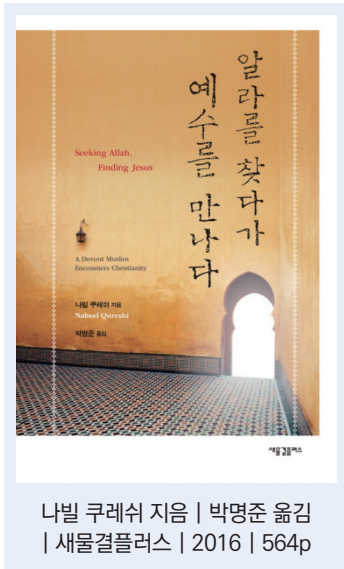
635년 잉글랜드 뱀버러의 주교로 임명된 에이든은 일평생 복음 전파에 힘썼다. 그는 수도사들과 함께 시편을 낭송하거나 말씀을 묵상했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기도를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부당하게 포로나 노예가 된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권세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면 가차 없이 책망했다. 어느 날 그는 왕에게 하사받은 말을 거지에게 주었다. 그것을 보고 불평하는 왕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폐하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말의 아들(말아지)이 더 사랑스럽단 말씀입니까?” 평생 수도사를 파송하고 수도원을 세웠던 그의 순종으로 잉글랜드의 많은 지역이 복음화되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나빌 쿠레쉬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논쟁을 위해 예수를 연구할수록 편협한 것은 이슬람이었다



나빌 쿠레쉬 지음 | 박명준 옮김
| 새물결플러스 | 2016 | 564p

제목만큼이나 아이러니컬하고 매력적인 책이다. 책을 읽고 나면 이슬람교에 적대적인 마음보다 무슬림들을 친구로 삼고 싶어진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깊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명확해진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

지 않은 채 익숙해서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진리들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진리인지 확증하게 된다. 나의 구원은 지식에서 왔는가, 믿음에서 왔는가. 그 구원이 내 삶의 기반이 되고 세계관을 주장하여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책을 읽으며 갖게 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끝나는 내면여행을 하게 된다.

이 책의 저자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 신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모범 청년이었다. 그는 이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국사회와 섞이지 못하는 부분을 기꺼이 포기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된 것을 기뻐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가 만난 대부분의 크리스천 친구들은 몇 마디 질문에 꼬리를 내리며, 그가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옳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코란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갖게 해 줄 뿐이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만나 단짝친구가 된 데이비드는 달랐다. 저자는

데이비드와의 종교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성경에 대해, 예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에 관한 엄청난 역사적 증거와 다양한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성경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이슬람 서적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 볼수록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다고 여겼던 무함마드와 코란의 무오류성이 편협하고 일방적으로 구전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혼란스러운 그가 알라에게 더욱 기도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한 분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목마름은 더해 갔다. 그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절정을 이루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맞이하게 된다. 그가 이슬람을 떠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그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 심지어 가족마저 버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는 개종을 하고, 서양 크리스

천 여성과 결혼도 했다. 의사직을 버리고 사역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의 수치와 절망이 되었고 결국 의절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이루신 일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그는 성경말씀 그 이상도, 이하의 삶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분이 가신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

그의 놀라운 간증은 모태신앙이라 자부하는 나의 목은 신앙을 일깨워주었다. 온통 교회에 둘러싸여 깊은 고민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말씀들을 나는 정말 내 생명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가. 전도를 하며, 그냥 낯선 이에게 무책임하게 짐보파리 던지듯이 복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닌, 진정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나누고 있는가. 교회 밖의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 당돌하고

발칙한 질문들을 던질 때 나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태도로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기꺼이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슬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어떤 것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이슬람의 허구를 밝혀낸 저자의 태도는 참 놀랍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진리와 영원을 향한 목마름으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갔다. 결국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전부를 던져 따라야 할 길임을 발견해 가는 모든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마음에 새기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다.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이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GNPNEWS] 이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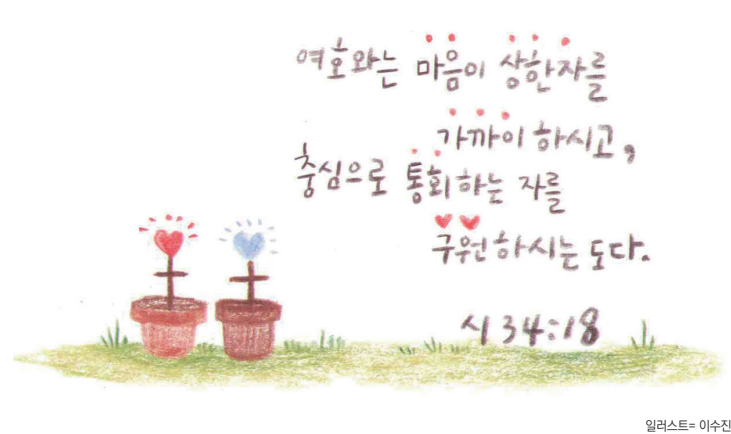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육아'

평소에 교제하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상담전화의 상담담임이로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주로 신문이나 전도책에 소개된 상담전화 안내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울고 보채는 아이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면서 무섭게 매를 드는 자신이 언젠가는 뉴스에 보도될만한 일을 저지를 것 같아 두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사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은 나처럼 똑같이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자매님은 폭력적인 환경에서 거칠게 자랐고 나는 다툼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아이를 향한 분노는 동일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가던 중 결국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매님은 십자가 복



일러스트=이수진

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뤄진 새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 믿음의 지체들에게 얘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영역에서 돌파했던 저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째, 절대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화를 내면 아이에게는 훈육이 아니라 ‘화내는 엄마’만 남습니다. 바른 훈육이 되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손찌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으로 때리지 말고 아이에게 매를 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동안 화난 마음을 추스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상황이지만 그런 나를 부인하고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전에 아이가 손대는 것마다 부수고 깨뜨리는 바람에 아이에게 ‘파괴 신’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나의 과오들을 나누며 당장은 마음을 다해 아이를 사랑할 수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 안고 믿음으로 ‘사랑해, 너는 예수님짜리야. 너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실 만큼 난 소중한 아이야.’라고 고백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못된 것에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나의 기분과 감정이 풀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까지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맞아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은 아이에게 바른 훈육이 될 수 있으며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를 맞고 나면 무서워서 야빠 근처에도 오지 않던 우리 아이도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난 이후, 이제는 아파서 울긴 해도 금방 그치고 다가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GNPNEWS]

임치운 목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1. 18 ~ 1. 31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경선 김사회 김성훈 김애심 김영세 김혜신 노은옥 박숙자 박주란 박혜정 서영숙 유정재 이남준 이정희 이지영 정영숙 정윤희 정은채 조경미 조남미 조명숙 주유순 최근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산동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교회 시흥교회 안양구루터교회 양지순복음교회 열매교회 용감한정예병과송분부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독교원 트리니티소프트 팔복갈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